

2010. 5. 17 제239호

#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세계도시동향 2010. 5. 17 제239호

## 문화 · 디자인

1.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대규모 문화프로그램 추진 (영국 버밍엄)
2. 엑스포 기간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상하이)

## 산업 · 경제

3.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발표 (베를린)

## 건강 · 복지

4.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지원 프로젝트 시행 (뉴욕)
5. 장기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 체결 (런던)

## 방재 · 안전

6. 트위터를 이용해 실시간 재해정보 제공 (일본)

---

## 도시환경

7. 도로의 대기오염 저감계획 발표 (런던)
8. 교통 소음 줄이기 대책 시행 (베를린)
9. 나무 심기를 장려하기 위해 '숲 저금통장' 발급 (일본 야마가타縣)

## 도시계획 · 주택

10. 수변공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뉴욕)
  11.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시스템 시행 (영국 맨체스터)
-

## 문 화 · 디 자 인

### 1.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대규모 문화프로그램 추진 (영국 버밍엄)

○ 영국 버밍엄시는 '시민 모두가 문화로'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13년 영국 최초의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화도시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 시는 2010년 5월 28일에 제출할 최종 지원서에 글로벌도시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고자 시민 참여를 독려함.

- 영국 제2의 도시인 버밍엄시는 지역사회의 뜻을 반영해 '버밍엄의 문화'란 이름으로 지원서를 작성함. 지원서는 크게 3개의 주제로 구성됨.

- 미래의 위대한 국제도시: 급변하는 세계 경제여건에서 도시의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도시에서 큰 역할을 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산업, 시설 등을 널리 홍보함. 이를 위해 2013년 새로운 버밍엄 도서관을 공공시설로는 가장 큰 규모로 건립하고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가을 축제를 열며 버밍엄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는 앵글로 색슨 대전(大畵)을 개최함.
- 차세대: 버밍엄에 사는 젊은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계획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함.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하고 있음.
- 현관 앞에서부터 문화: 문화도시로 선정되려면 도심부의 대규모 행사뿐 아니 라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도 중요함.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시민단체나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문화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임. 시민 및 전문가 문화패널도 구성하여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할 예정임.

(<http://birminghamculture.org/the-bid>)

## 2. 엑스포 기간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상하이)

○ 상하이시는 엑스포가 열리는 184일 동안 1일 평균 90여 회의 풍성한 문화행사와 1일 5회의 카퍼레이드 행사 등을 개최함. 시가 공식 발표한 문화프로그램은 807개로 1만 7288회의 공연이 열림. 이 중 엑스포 주최 측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24개로 1만 1621회의 공연을 펼치게 되며 엑스포 참가국이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783개로 5667회의 이국적인 문화공연을 펼칠 계획임.

- 엑스포 기간에 푸둥과 푸시에서 매일 5회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 이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푸둥에서 열리는 카퍼레이드는 주제별로 1호와 2호 노선으로 나뉨. 이 중 1호 노선의 카퍼레이드가 더 큰 규모로 펼쳐짐. 200명의 배우와 11대의 꽃차가 동원되어 75분간 세계 각국의 춤과 노래, 패션 등을 선보임. 2호 노선은 중국의 전통을 비롯해 참가국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 위주로 구성되며 200여 명의 배우와 4대의 꽃차가 1시간 동안 공연을 펼침.

· 푸시에서 열리는 카퍼레이드는 150여 명의 배우와 6대의 꽃차가 매일 2회의 공연을 펼침. 주로 로봇과 미래도시의 형상으로 차량을 꾸며 퍼레이드를 펼치고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임.

- 공연 정보는 ① 엑스포 전시관 내·외부에서 판매하는 ‘2010년 상하이엑스포 문화 공연행사 안내책자’, ② 엑스포 전시관 내 행사장에서 배포되는 팸플릿, ③ 행사장 내 LCD 영상, ④ 엑스포 웹사이트, ⑤ 엑스포 휴대전화 정보서비스, ⑥ 엑스포 전용전화 서비스, ⑦ 신문이나 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http://expo2010.ifeng.com/fuwu/lvyou/detail\\_2010\\_05/05/1485913\\_0.shtml](http://expo2010.ifeng.com/fuwu/lvyou/detail_2010_05/05/1485913_0.shtml))

([www.expo2010.cn/a/20100504/000017.htm](http://www.expo2010.cn/a/20100504/000017.htm))

### 3.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발표 (베를린)

○ 베를린시는 산업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Industriestadt Berlin 2010~2020’을 수립해 2010년 5월 발표함. 이는 市 경제국, 베를린 파트너社, 기술재단, 투자은행, 상공회의소, 기능장협회, 독일 노조연합, 베를린의 크고 작은 업체 등으로 구성된 베를린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완성함.

- 市는 베를린의 산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산업이 과학, 경제, 정치 영역과 포괄적이고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이라고 밝힘. 마스터플랜이 제시한 수도 베를린의 산업발전을 위한 주요 이념은 다음과 같음.

- 잠재력을 활용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잠재력은 오랜 전통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많은 신생 중소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 및 혁신력, 지식연구 기반, 전문 인력, 저렴한 생활비와 기업운영비, 충분한 산업용지 등에서 비롯됨.
- 성장을 현실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성장은 산업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학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도시로의 지속적인 성장이란 점을 경제계, 정계, 노조가 함께 이해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 이와 함께 제시된 산업발전 정책을 위한 지침은 ① 산업은 수도 베를린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이라는 인식 강화, ② 유관 분야와 영역을 포괄하는 산업 정책 추진, ③ 산업의 혁신력 강화, ④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활용하고 대화와 교류 촉진 등임.

- 마스터플랜은 34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포함함. 주요 프로젝트는 ① 신공항 건설로 폐쇄되는 테겔공항 부지에 산업기술 파크 조성, ② 연구기관과 산업체 간 기술이전 강화, ③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 대학, 산업체를 대상으로 수학과 자연과학 능력 향상 지원, ④ 베를린 수도 캠페인의 활성화로 현대적이고 혁신

적인 산업도시 베를린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이 있음.

- 마스터플랜은 베를린 산업정책 네트워크가 추진함. 산업정책 네트워크는 개별 프로젝트의 운영조직을 지정하며, 市는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5/05/294543/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5/05/294543/index.html))

([www.berlin.de/imperia/md/content/sen-wirtschaft/industrie/masterplan\\_a4.pdf?start&ts=1273067526&file=masterplan\\_a4.pdf](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sen-wirtschaft/industrie/masterplan_a4.pdf?start&ts=1273067526&file=masterplan_a4.pdf))

#### 학교와 기업이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듀얼 시스템’ 확대 시행 (도쿄)

- 2004년 처음으로 도쿄도립 로쿠고 공고에 도입된 듀얼 시스템은 독일에서 정착된 교육체제로 독일 경제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교육청과 제휴해 기업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취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都는 2010년에 첨단산업 단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 지역 학교에 듀얼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기로 함.
- 로쿠고 공고에서는 1학년 때 3개 회사에서 각각 10일간 업무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종을 파악하도록 함. 2~3학년 때에는 1개 회사를 선정해 총 4개월간 인턴십에 참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 졸업 후에는 취업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알선함. 협력 기업은 제조업, IT산업,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등 다양하며 인턴십 근무성적이 좋은 학생은 졸업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함.

([www.rokugokoka-h.metro.tokyo.jp/curriculum/dual.html](http://www.rokugokoka-h.metro.tokyo.jp/curriculum/dual.html))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4/20k4m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4/20k4m400.htm))

## 건 강 · 복 지

### 4.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지원 프로젝트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사회활동 기회가 적거나 도움이 필요한 55세 이상 시민을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함.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외출이 어려워 사회적·정서적 교류가 필요한 노인임.

-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주당 2~5시간을 봉사하며 일대일 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관심사와 수혜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배정하며 방문뿐 아니라 전화로도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는 수시로 자원봉사자 지원서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봉사자가 ① 편지 쓰기, ② 책 읽어주기, ③ 쇼핑이나 병원 방문 시 동행, ④ 우편물 발송, ⑤ 이·미용 서비스, ⑥ 복지관이나 양로원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원봉사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음. 주로 ① 장애노인의 필요사항, ② 자원봉사자와 수혜자 간 관계, ③ 시각장애 노인 보행 안내, ④ 방문 시 자원봉사자의 안전, ⑤ 다문화 등을 주제로 매월 시행됨.

([www.nyc.gov/html/dfta/html/volunteering/project.shtml](http://www.nyc.gov/html/dfta/html/volunteering/project.shtml))

### 5. 장기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 체결 (런던)

○ 런던시는 런던개발청, 일자리 창출센터 등과 2008년 장기 실업자를 위한 '런던 고용협약'(London Employment Accord)을 체결해 최근 1000번째 일자리를 제공함.

- 이 협약은 세인즈베리, 스칸스카 등과 같은 회사와 연계해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최근 1000번째로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은 이는 24년간 실업 상태에 있었던 시민으로 대형 슈퍼마켓인 세인즈베리에서 일하게 됨.



- 세인즈베리社は 협약으로 채용한 인력의 수준이 다른 인력 제공회사보다 높다고 말하고 일자리 제공사업을 런던 전역의 지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市는 이 협약으로 고용된 시민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축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임.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602](http://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602))

#### 음식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수집하는 자선단체 지원 (런던)

- 런던市는 음식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남아도는 음식을 수집하는 유관 자선단체의 활동을 지원함. 이 자선단체는 상업적 가치를 잃은 음식물을 모아 지역 커뮤니티에 제공하는데, 市가 투자한 자금으로 런던 북쪽에 위치한 파크 로얄(Park Royal) 지역에 음식 저장고를 조성함.
- 런던에서는 매년 300만 톤 이상의 음식(약 80만 명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이 남으며, 이 중 상당량이 매립되고 있음. 市는 남은 음식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 자선단체에 투자함. 이 자선단체의 활동으로 매일 2만 9000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저감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C2%A3362000-boost-charity-stop-surplus-food-being-dumped-landfill](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C2%A3362000-boost-charity-stop-surplus-food-being-dumped-landfill))

### 6. 트위터를 이용해 실시간 재해정보 제공 (일본)

○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로 정보를 주고받는 트위터(Twitter)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활발하게 활용됨. 트위터는 그동안 기업이나 상업지구 중심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활용범위가 넓어짐.

-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府 재래시장에서는 트위터 이용자의 방문이 늘어 매출이 10% 늘었으며, 미야자키縣 등에서는 단체장이 직접 트위터로 관광 이벤트나 특산품을 홍보하여 호평을 받음. 홋카이도 리쿠베츠 마을에서는 트위터로 2010년 2월 열린 축제를 홍보해 성공리에 마칩. 요나고市는 '네기타로'란 市 상징캐릭터를 만들어 트위터로 1일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트위터를 이용해 지역 발전 기금을 성공적으로 모금한 사례도 있음.

· 트위터의 활용에는 주의가 필요함. 2010년 1월 현재 일본 내 이용자는 약 470만 명(PC 이용자 기준)인데, 이 중에는 사칭을 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기후縣은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기후縣을 사칭한 사람이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음. 도쿄대, 와세다대 등 5개 대학을 사칭해 불법 상업 사이트로 유도한 사례도 있었음.

- 일본 총무성 소방청은 2010년 5월부터 트위터를 활용해 재해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특히 가짜 정보와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 트위터 회사로부터 인증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일본 행정기관으로는 최초임.

· 소방청은 재해정보를 트위터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대책 수립을 촉구함. 재해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답신을 받지 않으며 평상시에는 소방청의 발표내용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함.

(요미우리신문, 2010. 4. 20, 5. 4)

## 도 시 환 경

### 7. 도로의 대기오염 저감계획 발표 (런던)

○ 런던시는 '저탄소 배출 존' 정책의 일환으로 도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최근 발표함. 이 계획안에는 도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 밴과 미니버스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됨. 동시에 250km에 이르는,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의 이산화질소 수치를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달성할 목표도 정함.

- 대기오염이 심한 런던의 주요 도로는 멜리본, 유스턴, 마블 아치, 하이드 파크 코너, 타워 힐 등임. 시는 이들 도심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 줄일 계획임. 런던 교통국은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① 도로 청소를 실시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②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 차량 속도를 줄이며, ③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④ 자동차를 장시간 주차할 경우 공회전을 금지하며, ⑤ 노후 대형 화물차와 미니버스의 운행을 규제하고, ⑥ 친환경 택시 운행을 활성화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plans-announced-tackle-pollution-londons-dirtiest-roads](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plans-announced-tackle-pollution-londons-dirtiest-roads))

#### 지하철 1일, 월, 분기 승차권 도입 (상하이)

- 상하이시는 엑스포를 맞아 지하철 승차권 종류를 늘리고 자주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함. 먼저 상하이 지하철공사는 1일, 월, 분기 승차권을 출시함. 특히 1일 승차권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외지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함. 승차 횟수와 상관없이 지하철을 24시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1매당 가격은 18위안(약 3000원)임. 201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될 1일 승차권은 구매 당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용 가능하고 이용 후 기념으로 가질 수 있음. 또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줌. 대중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탈 경우 이용금액이 70위안(약 1만 2000원)을 초과하면 지하철 요금을 10% 할인해줌.

(<http://sh.xinmin.cn/minsheng/2010/04/24/4591564.html>)

## 8. 교통 소음 줄이기 대책 시행 (베를린)

○ 베를린시는 도시 소음을 심각한 환경문제 및 시민건강 문제로 보고 도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0년 4월 28일 '세계 소음 인식의 날'(International Noise Awareness Day)을 맞아 시는 도시 소음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 소음 줄이기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의 동참을 호소함. 소음은 심장 질환과 순환기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 증명된 바 있음.

- 도시 소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 소음임. 시가 집계한 교통 소음 피해 주민은 화물차 통행 도로변에 사는 시민인데 낮에는 22만 명, 밤에는 34만 명 정도 됨. 기차와 비행기 소음 피해 주민도 수만 명에 이름.
- 시는 2009년에 도시 소음 줄이기 정책을 수립해 교통 소음에 노출된 지역을 조사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함.
  - 교통 소음이 심한 지역에는 야간 운행속도를 30km/h로 규제함. 최근에는 도로 공간의 기능을 새롭게 분리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함. 도로 공간에서 자동차 교통은 도로 중심으로 모으고 가장자리 쪽은 자전거도로로 조성해 도로변 주택에 교통소음이 덜 가도록 하는 방식임. 도로 공간의 기능 분리가 교통이나 소음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사후 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소음을 유발하는, 손상된 아스팔트 도로 등의 보수공사도 시행하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에는 투명 방음벽을 설치함.
- 시는 시민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교통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시가 제안한 방안은 ① 자가용 덜 타기, ②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③ 자전거 타기, ④ 공공교통 이용하기, ⑤ 차량 운전 시 일정속도 유지, ⑥ 조용하게 차량 문 닫기, ⑦ 불필요한 경적 울리지 않기, ⑧ 음악을 시끄럽게 틀지 않기 등임. 이는 소음뿐 아니라 유해물질 배출량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방안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4/27/293540/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4/27/293540/index.html))

## 9. 나무 심기를 장려하기 위해 '숲 저금통장' 발급 (일본 야마가타縣)

○ 일본 야마가타縣은 나무 심기나 산림 정비 활동정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을 저금할 수 있는 '숲 저금통장 제도'를 시행함. 참여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계좌번호가 부여된 '숲 저금통장'을 발급하고 산림 정비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을 기입해줌. 이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산림 정비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 제도는 오사카府에서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저금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함.

- 활동 내용별로 이산화탄소 저감량이 정해져 있음. 나무 심기는 1그루당 이산화탄소 2kg, 벌초는 150㎡당 75kg, 가지치기나 간벌(間伐) 정비는 100㎡당 50kg 등임. 이산화탄소 200kg은 냉장고 사용 1년분, 1000kg은 승용차 주행 반년분 등의 기본 정보를 통장에 기재해 자신의 활동성과와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야마가타縣은 2010년 6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을 위해 현립 공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매주 주말 나무 심기나 산림 정비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활동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을 저금해줌. 이산화탄소 저금량이 1000kg 이상이 되면 '숲의 달인'이란 인증서도 발급해줌.

([www.pref.osaka.jp/chubunm/chubu\\_nm/ryokusei-ikomakyo8.html](http://www.pref.osaka.jp/chubunm/chubu_nm/ryokusei-ikomakyo8.html))

### 노인을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보조금 지급 (독일)

-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5월부터 노인을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 노인의 편의를 위해 ① 승강기 설치, ② 계단 옆에 휠체어 경사로 설치, ③ 현관과 출입문 확대, ④ 욕실 개조 등을 할 경우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주택개조 비용이 6000유로(약 853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함. 주택 한 채당 최대 2500유로(약 355만 원)를 지급하며 주택개조를 대규모로 할 경우 보조금 외에 1.51%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기도 함.

([www.bmvbs.de/Presse](http://www.bmvbs.de/Presse))

## 도시 계획·주택

### 10. 수변공간 종합계획 수립 추진 (뉴욕)

○ 뉴욕시는 800km이 넘는 수변공간 종합계획안을 2010년 중에 수립할 방침임. 市 도시 계획국은 항구 및 제반시설, 해변 등을 수변공간으로 정의하고 1992년 수립한 수변공간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난 18년간의 경험을 참고하여 수립할 예정임.

- 지난 18년간 수변공간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1992년 계획은 ① 수변공간의 다양성 인정, ② 오픈스페이스, 주거 및 상업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간 균형 유지란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음. 이 계획은 ① 수변공간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공간 창출, ② 시민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의 성과를 남음.

- 2010년에 수립할 계획안이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① 향후 10년간 도시 수변공간의 발전방향, ② 수변공간 현황, ③ 개발계획의 대안 등임. 또한 이번 계획안은 ① 시민의 수변공간 접근성 향상, ② 양질의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 ③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 환경보호에 기여, ④ 수변공간의 교통기능 향상, ⑤ 수질 향상, ⑥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완화 등을 목표로 함.

· 수변공간 종합계획은 수변공간을 총 22개 구간으로 나누고 ① 자연·업무·공공 수변공간, ② 토지 이용, ③ 블루 네트워크(수상교통, 여가, 교육, 수질 등) 등의 주제별 세부계획으로 구성될 예정임.

([www.nyc.gov/html/dcp/html/cwp/index.shtml](http://www.nyc.gov/html/dcp/html/cwp/index.shtml))

## 11.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시스템 시행 (영국 맨체스터)

○ 영국 맨체스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주택 공급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시는 주택조합, 주택신탁 등과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원칙에 따라 주택 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을 배정할 계획임.

- 시는 2010년 3월 새로운 원칙을 확정하고 2010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임. 새로운 시스템은 공공주택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입주 대기자가 거주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함.
  - 새 시스템의 세부 원칙은 ① 공정성과 투명성, ② 공공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주민 지원, ③ 주택 수요자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지원, ④ 지역사회 기여도 판단 등임.
- 공공주택 지원자격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원기회를 차등화함. 1그룹이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짐.
  - 1그룹: 가장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을 1그룹에 배정함. 취약한 주택 여건 때문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계속 악화되고 있는 주민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피해 다니는 주민이 이에 해당됨.
  - 2·3그룹: 새로운 주택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주민을 배정함. 기본 시설이 부족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곧 이사해야만 하는 세입자 등이 이에 해당됨. 이 중 ① 맞벌이 부부, ② 고용주로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③ 시민단체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청년 지원자 중에 '예비 세입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그룹, 나머지는 3그룹에 배정함.
  - 4·5그룹: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배정함. 이 중 2그룹에 배정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4그룹, 나머지는 5그룹에 배정함.
  - 6그룹: 결격 사유가 있는 주민을 6그룹에 배정함. 월세 미납 및 연체자, 유관 규정 위반자,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른 주민 등이 이에 해당됨.

([www.manchester.gov.uk/info/89/rehousing-allocation\\_system/4458/new\\_rehousing\\_rules/1](http://www.manchester.gov.uk/info/89/rehousing-allocation_system/4458/new_rehousing_rules/1))